

광주·전남 돌봄교실 간식 장성 과일 먹는다

삼계농협 시범사업 업체 선정
내달부터 인근 초등학교 공급
안정적 판로...소득 증대 기대

방과 후 돌봄교실에 다니는 광주·전남 초등학교생들이 장성군에서 나는 과일을 간식으로 먹게 됐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삼계농협이 장성과 인근 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적격 업체로 선정됐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이다.

과일간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1인당 1회 과일 섭취 권장량인 150g의 조각 과일을 파우치 용기에 담아 주



삼계농협이 운영하는 농식품 신선편이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과일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1~3회씩(연간 30회) 개인별로 제공한다.

장성군은 인근 지역 초등학교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면 돌봄교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또 사과와 배, 복숭아, 딸기, 토마

토, 단감 등 장성군 과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과일 가공산업의 새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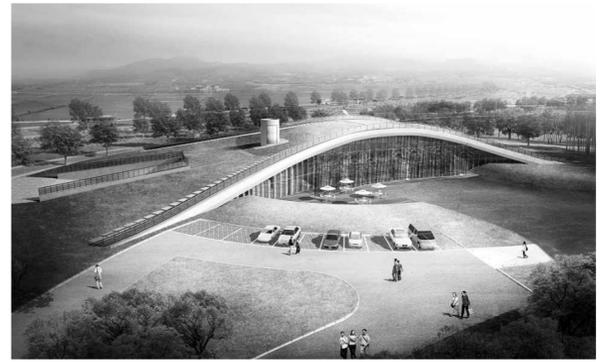
이처럼 삼계농협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가공업체에 선정된 것은 장성군이 과일 가공산업에 쏟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성군은 지난 2010년 전남 지역 최초로 보육시설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소재지원센터'를 삼계면 사창리에 설립했으며 삼계농협이 농협연합 산지유통센터(APC) 내에 운영하는 농식품 신선편이사업장도 지원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삼계농협이 과일 간식 가공업체로 선정돼 우리 군 과일을 더욱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교실은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양질의 육아 서비스로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생 중 상당수가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68.3%가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국민체육센터 담빛 수영장 이달말 준공

만성리 일원에 마무리 공사

담양국민체육센터 '담빛 수영장' 조성사업이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30일 담양읍 만성리 460번지 일원에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담양국민체육센터(담빛수영장·조감도) 준공식을 한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담양국민체육센터 담빛 수영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숲속의 정원을 연상케 한다. 담양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건축 연면적 2068㎡) 규모로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길이 25m, 6개 레인을 보유한 일반수영장과 유아 풀장, 라켓, 스쿼(스파), 사우나 등을 갖추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화순 적벽 버스투어 24일 재개

올해부터 물염적벽 추가

화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화순적벽의 버스투어가 다시 시작된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올해로 4년째다.

군은 지난해까지 답사코스에서 빠져 있던 '물염적벽'을 올해부터 새로 포함했다. 물염적벽은 호남 제일의 정자로 인종반은 물염정과 감삿과 시비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수몰되기 전의 화순적벽의 비경을 사진으로도 볼 수 있다

록 다양한 적벽사진이 전시된 홍보판도 설치했다.

지난해보다 답사코스가 늘어남에 따라 투어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3시간40분으로 늘었다.

올해도 투어일은 매주 수요일과 토·일요일로 같다. 1일 2회(오전 9시, 오후 1시30분) 화순읍 이용대체육관 앞에서 출발하고 이서 커뮤니티센터를 경유한다. 교통비는 1인당 1만원이다.

투어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투어 희망일 2주전 오전 9시부터 화순군청 홈페이지 또는 화순적벽 버스투어 홈페이지에 접속,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KTX 장성역 정차 청신호 켜졌다

국토부·코레일 "SR 통합후 검토" 긍정 답변

장성역 정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군수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찾아 KTX 장성역 정차 문제를 논의했다. KTX 장성역 정차를 둘러싼 논의는 장성군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대전

코레일 청사에서 홍승표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여객마케팅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더욱 구체화했다.

이 자리에서 홍 여객마케팅처장은 "현재까지는 KTX 장성역 정차가 어렵지만,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열차 시간 통합

편성과 열차 추가 구매를 통해 KTX 운영 횟수를 늘림으로써 장성역 정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코레일 측은 KTX 장성역 정차 문제와는 별도로 장성역 탑승객들을 위해 정읍역 환승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레일 측이 코레일·SR 통합 후 KTX 장성역 정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15년 4월 호남선 고속철도가 개통된 뒤부터 중단된 KTX 장성역 정차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군 우박피해 산림 피해지 복구 작업

내년까지 2년 걸쳐 조림사업

화순군이 우박피해로 수목이 고사된 대규모 산림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 산림재해 복구 조림사업에 발을 댄고 나섰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31일 기상이변에 따른 우박으로 동북면 유천·질정·신울리 및 북면 옥리 등 2개면 4개리 650ha(195만평)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피해가 심해 수목이 고사된 임야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산림재해 방지 조림 등 대규모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20억원을 들여 편백나무 등 경제수 조림 207ha, 산림재해방지조림 94ha, 지역특화조림 21ha 등 총 322ha(7종 78만본) 규모로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불철 216ha 조림사업지중 210ha를 우박 피해지에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천리 국도변과 저수지, 마을 주변은 수원과 경관을 감안해 편백과 목백합 등을 식재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산림 피해지를 조기 복구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조림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 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화순군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우박 피해를 입은 지역에 나무를 심고 있다. <화순군 제공>

담양군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담양군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담양군에 거주한 만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에서는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

한 한방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 진료확인서, 기초검사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담양군보건소 출산지원 담당부서(061-380-3982)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갖춘 행복한 담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NEW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점포임대 - 구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지리산 온천 정문 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55평), 편의점(55평), 지하 - 노래방(85평)
- 호텔건물 내 있음, 비품권리금없음
- 모든점포 분할임대가 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입주
- 문의.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